

# 朝鮮朝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的 綜合的 評價

李 姬 載\*

## <目 次>

序 論	Ⅱ. 技術의 改革
Ⅰ. 朝鮮朝 主要活字 鑄造 및 印刷 狀況	Ⅲ. 文獻의 刊行 및 普及 結 論

## 序 論

프랑스의 유명한 出版業者이자 文獻學者인 Maurice Audin은 그의 著書인 「印刷史」(Histoire de l'imprimerie)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文化的 普及이 可能치 않았던 世界の 北半部의 두 地域인 韓國과 라인江邊에서 거의 같은 時期에 活字印刷의 發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 두 發明은 의심할 바 없이 改革의 움직임으로 가득차 있던 社會相과 연결되고 附隨된 것이다.”<sup>1)</sup>

비록 Maurice Audin이 認定한 韓國의 活字印刷의 發明 時期는 그보다 훨씬 앞당겨져야 하는 것이지만 韓國과 西洋에서 各各 實用化된 15c의 活字印刷은 世界の 刊行 및 出版業界 나아가서는 Mass Media分野에 획기적인 變革을 가져왔으며 世界文化의 發展에 지대한 貢獻을 남긴 것이다.

Gutenberg의 活字가 당시 혼란하고 革新的인 西歐社會 속에서 誕生되었듯이 15c의 韓國의 活字印刷은 高麗와 朝鮮의 王朝交替에 뒤이은 것이었다. 新王朝를 設立한 朝鮮으로서는 새로운 政治體制를 樹立하고 이를 法制化할

\* 淸州大學校圖書館學科助教授

1) AUDIN, Maurice, Histoire de l'imprimerie, Paris, A. et J. Picard, 1972, p.31.

일이 시급했으며 이같은 배경에서 1403年 金屬活字인 癸未字가 鑄造된 것이다.

癸未字가 韓國 最初의 鑄造活字는 아니지만 史上 最初의 大量生産과 이에 따른 實用化는 世界印刷史 속에 큰 意義로 作用하고 있다. Maurice Audin 과 같이 많은 歐美學者들이 癸未字를 韓國最初의 金屬活字로 誤認하고 있기는 하나 이같은 癸未字의 役割에는 東西洋學者 모두가 그 價値를 認定하고 있다.<sup>2)</sup>

誤認된 點에 대해서는, 프랑스 Paris VII大學에서 통과된 本人의 博士學位論文에 癸未字 以前の 活字印刷에 대해 言及함으로써 구라파 學界에 이 問題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 是正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sup>3)</sup>

實際로 오늘에 이르러 最初의 金屬活字의 出現問題는 더 이상 重大한 論爭點이 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이보다 重要한 것은 오히려 世界活字印刷史 속에 癸未字가 차지하는 진정한 意味를 찾는 일일 것이다. De Vinne은 그의 著書「유럽 印刷術의 發明」에서 “印刷術의 發明者는 종이를 發明하지 않았으며 木板術을 出現시키지도 않았다. 紙面上의 印刷나 印刷된 書籍을 刊行한 첫 試圖者도 아니다. 첫번째 印出者도, 첫번째로 活字를 構想했거나 製造한 사람도 아닐 것이다. 그 첫 發明者는 活字鑄型(type mold)을 제일 처음 發明하여 作業을 實際적이고 實用的으로 만든 者이다.”라고 말하고 있

2) *ibid.* p.94;

BRUN, André, *Les origines du papier, de l'imprimerie, et de gravure*, Paris, Edition de la tournel, 1935, p.66;

CARTER, Thomas, F.,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New York, Donald Press Company, 1955, pp.225-226;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vol. 1, pp. XIV-XLVI;

FABRE, Lucien et Henri Jean Martin, *L'apparition du livre*, Paris, Albin Michel, 1958 et 1971, pp.018-109;

McGOVERN, Melvin, *An outline of the developpement of Korean Printing*, Los Angeles, Dauson book shop, 1966, pp.14-15;

張秀民, 中國印刷術的 發明及 其影響, 北京, 人民出版社, 1958, pp.103-131;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 その歴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6, pp.135-137;

庄司淺水, 印刷文化史, 東京, 印刷學會出版部, 1957, pp.65-68;

川瀨一馬, 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安田文庫, 1937, pp.151-176.

以外에도 多數이나 外國의 主要著書에만 局限시켰음.

3) LEE Hee-Jae, *La typographie coréenne au XV<sup>e</sup> siècle*, Thèse pour le Doctorat de 3<sup>e</sup> cycle, Université de Paris VII, 1981, Chapitre II.

다.<sup>4)</sup> 그리고 이것은 바로 癸未字의 役割과 一致하는 것이다. T.F. Carter도 이 點에 同意하고 있다.<sup>5)</sup>

이같이 世界印刷史에 重要的 意味를 갖는 癸未字는 1883年 博文局新鉛活字로 印刷된 漢城旬報의 出現까지 全 朝鮮朝를 통하여 어떠한 經路로 變遷되어 가는가. 여지껏 우리의 古活字 및 古文獻에 대한 研究는 主로 年代史的 接近方法내지는 各 事項의 形態書誌學的 側面에서 다루어져 왔다. 本論文이 試圖하는 바는 朝鮮朝의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의 意味를 技術發達史的 側面과 文化史的 側面에서 보다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方法으로 考察하고 그 虛와 實을 통한 綜合的 評價를 내리고자 함에 있다.

### I. 朝鮮朝 主要活字의 鑄造 및 印刷狀況

綜合的 評價를 내리기에 앞서 보다 明瞭한 理解의 흐름을 위해 일단 主要鑄造活字 및 印刷의 狀況을 既存研究에 基盤하여 간단히 綜合, 要約해 보기로 하자.

#### 1. 太宗年間(1400~1418)의 癸未字와 그 刊本

癸未字의 鑄造 動機와 過程에 대해 가장 詳細히 說明한 權近의 鑄字跋에 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수 있다.

첫째, 太宗은 1403年 春 2月, 治世를 위하여 반드시 두루 보아야 할 典籍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東方 바다 건너 中國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板刻本은 쉽게 剝缺되고 더우기 天下의 모든 書籍을 刊行키 어려우므로 銅으로 活字를 만들어 書籍을 印出토록 左右諸臣에게 命했다.

둘째, 活字鑄造에 소요되는 經費는 百姓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朝廷 및 宗親, 勳臣등의 內帑金으로 充當했다.

셋째, 字本은 經筵에서 내놓은 古注가 收錄된 詩經, 書經, 春秋左氏傳을 擇하여 同年 2月19日에 始鑄하여 數個月間에 걸쳐 十萬字를 鑄造했다.<sup>6)</sup>

太宗의 命으로 鑄字所를 세우고 癸未字를 鑄造할 當時, 많은 朝臣들은 技

4) De Vinne,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Europe, 1876, pp.67-68.

5) CARTER, T.F., op. cit., p.229.

6) 權近, 陽村集, 卷22, 跋語類, 鑄字跋.

術的, 經濟的, 物質的인 어려움을 들어 이에 反對意思를 강력히 表示한 듯 하나<sup>7)</sup> 太宗은 이를 強行함으로써 朝鮮朝 活字鑄造의 磐石을 마련함과 동시 朝鮮印刷文化의 全盛時期로 간주되는 世宗朝로 이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

癸未字는 活字自體의 技術的인 미흡함과 組版, 印出에 있어서도 問題點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 이어지는 技術의 改革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鑄字所는 계속하여 癸未字本을 刊行하였으며 太宗 10年부터는 鑄字所에서 書籍을 販賣토록까지 했다.<sup>8)</sup>

現存하는 癸未字本으로는 東來先生校正北史詳節 卷4, 5, 6 3冊, 宋朝表賤摠類 卷7 1冊, 十七史纂古今通要 卷16, 17 2冊,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卷5, 6合 1冊, 陶隱先生詩集 卷3 1冊등 5種8冊이 있으며 覆刻本으로 禮記淺見錄과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眞解의 2種이 있다.<sup>9)</sup> 또한 記錄上으로 癸未字本임을 確認할 수 있는 것으로 十一家註孫子, 一七史, 大學衍義, 六典·續六典, 乘船直指錄등을 들 수 있다.<sup>10)</sup>

## 2. 世宗年間(1418~1450)의 活字鑄造 및 印刷事業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新王朝의 確固한 기틀을 마련한 世宗은 文化事業에 있어서 더욱 획기적인 發展을 가져왔으니 그중에서도 集賢殿을 中心으로 한 한글의 發明과 印刷術의 改革은 가장 重要한 것이었다. 한글의 發明은 印刷技術的인 側面에서도 큰 問題點을 提示하는 것이며 癸未字의 短點을 補完시키기 위해 試圖된 庚子字의 鑄造에 이은 甲寅字의 誕生은 그 字本으로나 技術로나 朝鮮朝 印刷史 5세기를 통해 根幹을 이루는 것이었다.

活字鑄造와 文獻刊行을 위한 父王의 熱을 이어받은 世宗은 即位初부터 活字鑄造에 關心을 기울여 癸未活字의 不整함으로 인해 組版時 생기는 問題點 등에 대해 몸소 研究하여 工曹參判 李葦과 前小尹 南汲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活字를 鑄造토록 하니<sup>11)</sup> 이가 곧 1420年 11月 始鑄되어 7個月만에 完成된 庚子字로서<sup>12)</sup> 그 技術的 改良으로 인해 一日印出量은 癸未字의 數紙로부

7) 世宗實錄, 卷65, 3張, 前面.

8) 太宗實錄, 卷9, 11張, 前面.

9)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6, pp.90-91.

10)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 第六號, 1974, pp.20-22.

11) 世宗實錄, 卷65, 3張, 後面.

12) 卞季良, “庚子字鑄字跋”, 東文選 卷103.

터<sup>13)</sup> 20餘紙로 증가됐다.<sup>14)</sup> 現存하는 庚子字本에 의하면 字體는 南宋末에서 元~明初의 刊本에서 볼 수 있는 字體에 해당하며<sup>15)</sup> 面當 11行21字의 配字로 癸未字本에 비해 그 字樣이 작고 精致하며 예쁘다. 現存하는 庚子字本으로는 眞西山讀書記大學術義 卷59등 20種이 있으며<sup>16)</sup> 世宗實錄 內的 記錄으로 老乞大등 11種이 있다.

印刷技術의 革新을 위한 世宗의 끊임없는 研究는 마침내 韓國 印刷史의 頂點을 이루는 甲寅字의 出現을 낳게 했다. 1434年 7월에 着手되어 2個月만에 完成된 大小 20餘萬字의 甲寅字는 一名 衛夫人字라고도 하며 그 字體가 아름답고 整然하여 그 刊本은 實로 깨끗하고 우아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庚子字에 비하여 큰字形으로서 經筵 所藏의 孝順事實, 爲善陰騭, 論語등을 字本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後에 世祖로 王位에 오르는 晉陽大君의 書體로 배꾸었으며 鑄造된 活字는 方正하여 印出量도 庚子字에 비해 40餘紙로 증가됐다.<sup>17)</sup>

甲寅字 鑄造에 있어서 또 한가지 特記할만한 事項은 1446年 한글의 반포 이후 1447~1449年 사이 甲寅字形에 의거, 한글活字가 처음으로 鑄造되어 우리文化의 一大 革新을 가져온 것이다.<sup>18)</sup>

一般的으로 各面이 10行18字로 되어 있는 甲寅字本은, 金斗鍾 博士의 調査에 의하면, 1573年 再鑄甲寅字가 鑄造되기까지 148種에 달하는데 現存 甲寅字本은 大學術義등 130種에 이르고 있다.<sup>19)</sup>

甲寅字의 意義는 朝鮮朝 印刷術의 頂點에 있었다는 것과 함께 이같은 理由로 以後 再鑄甲寅字(1573? 1580?), 戊午字(1617~1618), 戊申字(1668), 壬辰字(1772), 丁酉字(1777)를 거치면서<sup>20)</sup> 다섯 차례나 改鑄되어 朝鮮의 印刷史의 根幹을 이루었다는 點이다.

13) 世宗實錄, 卷65, 3張, 後面.

14) 卞季良, op. cit.

15)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p.91.

16)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pp.139-140.

17) 世宗實錄, 卷65, 3張, 後面. 金濱, 甲寅字鑄字跋

18) 金斗鍾, “한글活字考”, 최현배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1964, pp.57-66.

19)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pp.146-149.

20)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pp.94-95.

改鑄 甲寅字는 構成, 字體, 鑄造過程이 甲寅字의 그것을 母體로 하고는 있으나 그 優秀性은 初鑄 甲寅字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實際로 甲寅字 以後의 活字의 技術의 改革에 대한 記錄이나 痕迹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甲寅字 自體에 대한 評價는 至大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印刷技術 發達史의 側面에서 볼 때는 실로 遺憾이라 아니할 수 없다.

以外에도 世宗年間에는 晉陽大君 字體의 2.3×3.4cm의 大字인 우리나라 最初의 鉛活字인 丙辰字와<sup>21)</sup> 東國正韻의 刊行을 위한 1.8×2.0cm의 東國正韻字<sup>22)</sup> 鑄造되어 大形活字의 새로운 面貌를 보여 주었다.

### 3. 世宗朝 以後의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

반복하거나 世宗年間은 朝鮮朝 印刷史의 主軸을 이루는 時期로서 以後의 活動은 踏步내지는 退步 狀態에 머물러 있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여기서 甲寅字 다음으로 比重을 차지할만한 몇가지 事例만을 골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乙亥字(世祖元年, 1455); 姜希顏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鑄成된 것으로서<sup>23)</sup> 大中小의 三種이 있는데 姜希顏書體의 特色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中字이다. 한글活字도 동시에 만들어졌으며 壬辰亂 直前까지 甲寅字 다음으로 오래 使用된 活字이다.<sup>24)</sup> 그 刊本으로는 訓辭등 142種에 달하고 있는데<sup>25)</sup> 同 時代에 併用된 乙亥字와 甲寅字는 時代가 내려오면서 混用되어 乙亥字刊本에 小數의 甲寅字가 甲寅字刊本에 小數의 乙亥字가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sup>26)</sup>

甲辰字(成宗 15, 1484); 內藏의 歐陽文忠公集과 烈女傳을 字本으로 하고 그 不足字는 朴耕으로 하여금 補寫케 하여 鑄造된 大小 30餘萬字의 活字이다. 鑄造動機는 주로 사용되던 甲寅字나 乙亥字의 字體가 조금 커서 종이

21) 世宗實錄, 卷74, 10張, 前面.

成侃, 慵齋叢話, 卷7, 活字條.

22)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p.180.

23) 成侃, op. cil.

金宗直, “新鑄字跋”, 治平要覽卷末.

24) 李仁榮, “乙亥字小攷”, 書物同好會會報 第17號, 1942, pp.26-29.

25)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pp.154-158.

26) 金元龍,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p.11.

많이 들뿐 아니라 오랜 사용으로 磨滅되고 不足字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앞서 鑄造된 乙酉字는 字樣이 不整하여 印書時 難點이 많았던 데 있다.<sup>27)</sup> 이 역시 壬辰亂 以前까지 사용되어 王荆文公詩등 64種의 刊本이 전해지고 있다.<sup>28)</sup>

顯宗實錄字(肅宗9年, 1677); 字本으로 方正한 晉體를 따라 鑄造된 1.3×1.4cm의 大字와 1.3×0.7cm의 小字이며<sup>29)</sup> 哲宗實錄에 이르기까지 1908年間 使用되었다. 8代王朝實錄과 38種의 書籍이 이에 의해 刊行되었다.<sup>30)</sup>

韓構字(1677年頃); 金錫胄 個人이 當時의 名筆家 韓構로 하여금 글자를 쓰게 하여 字本으로 삼고 私鑄한 銅活字로서<sup>31)</sup> 字形이 작고 아름다와 肅宗 2年(1695)에는 政府가 이를 사들여 印書에 使用했다.<sup>32)</sup> 1세기 가깝도록 26種이 刊行되었으며<sup>33)</sup> 1782년에는 86,085字가 改鑄되어 壬寅字로 불리우며<sup>34)</sup> 1852년까지 9種의 書籍을 刊行했다.<sup>35)</sup> 또한 1858년에는 文苑을 刊行키 위해 31,829字가 새로이 改鑄되었다.<sup>36)</sup>

校書館印書體字; 前後期로 나누어 두種類로 불리우는 것으로 前者는 1684年 以前에 後者는 1723年 以前에 鑄造된 것으로 보이는 鐵活字이다. 前者가 後者에 비하여 약간 작은 크기로서 二種 모두 明體를 字本으로 하고 있으나 後者가 보다 扁平하고 劃이 가늘다.<sup>37)</sup> 前者로는 약 25種, 後者로는 약 34種의 書籍이 19c까지 刊行되었다.<sup>38)</sup>

整理字(正祖19年, 1795); 中國 四庫全書聚珍板式을 모방하여 康熙字典의

- 27) 金宗直, op. cit. 直  
成宗實錄, 卷169, 15張, 後面~16張 前面.  
ibid., 卷174, 1張 前面.  
中宗實錄, 卷23, 29張 後面~30張 前面.
- 28)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pp.179-181.
- 29) 肅宗實錄, 卷6, 493張 前面.
- 30) 金斗鍾, op. cit. pp.299-300.
- 31) 東國文獻備考, 卷33, 藝文考 1, 歷代兵籍.  
肅宗實錄, 卷8, 10張, 前~後面.
- 32) ibid., 卷28, 12張, 後面.
- 33) 金斗鍾, op. cit., p.310.
- 34) 正祖實錄, 卷44, 28張, 後面.  
國語, 整理字本, 卷21末 鑄字事實.
- 35) 金斗鍾, op. cit., p.311.
- 36)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p.323.
- 37) ibid., pp.260-262.
- 38) 金斗鍾, op. cit., pp.313-318.

字體를 字本으로 1792年 製造된 32萬餘字의 木活字인 生生字를<sup>39)</sup> 基本하여 鑄造된 30餘萬字의 大小銅字이다.<sup>40)</sup> 生生字가 精攷히 다듬어져 두가지 活字를 구분키 어려우며 이들은 1883年 西歐式 鉛活字가 導入된 以後에도 使用되어 60餘種의 書籍이 刊行되었다.<sup>41)</sup> 이는 15c 以後의 活字印刷史上 가장 큰 규모의 것이다.

全史字(1816); 韓構字와 마찬가지로 朴宗慶 個人에 의해 私鑄되어<sup>42)</sup> 政府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淸의 聚珍印書體를 字本으로하여 鑄造된 20餘萬字에 달하는 大小銅字이다. 正祖朝의 丁酉字(六鑄甲寅字), 整理字와 함께 新活字 以後에도 使用된 것으로서 1909년까지 94種의 書籍이 이에 의해 刊行되었다.<sup>43)</sup>

以上 비교적 오래 使用되어 刊行文獻이 많은 活字들만을 추려 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朝鮮朝 印刷史는 世紀를 거듭함에 따라 눈부신 發展을 이룩한 西歐의 그것에 비해 별다른 特徵없이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朝鮮初 創造의인 構想과 양성했던 刊行事業이 왜 5세기가 넘도록 踏步될 수 밖에 없었는가. 우선 그 理由를 技術的인 側面과 文化史的인 側面에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 II. 技術의 改革

이 問題에 關해서는 原則的으로 印刷의 基本條件이 되는 종지와 墨에 대한 考察도 併行되어야 할 것이나 本 論文에서는 活字의 鑄造에서 印出過程까지 局限시켜 論하기로 한다.

朝鮮朝 活字鑄造 및 印刷 技術에 대해 言及한 古文書로는 1470年 刊行된 成倪의 慵齋叢話를 들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說明들은 이에 依據한 現代의 풀이임을 밝혀둔다.<sup>44)</sup>

### 1. 活字의 鑄造

39) 生生字譜, 鑄字所編.

正祖實錄, 卷35, 35張, 後面.

40) *ibid.*, 卷44, 17張, 前~後面.

41) 金斗鍾, *op. cit.*, pp.327-329.

42) 朴宗慶, 敦巖集, 卷6, 題跋書錦石後集.

43) 金斗鍾, *op. cit.*, pp.332-334.

44) 成倪, *op. cit.*



活字의 鑄造를 위해서는 東西洋이 마찬가지로 字樣의 圖案, 刻印板과 活字의 母型의 準備, 그리고 鑄造의 3過程을 거친다.

우선 字本이 결정되면 刻字匠은 이를 나무에 새긴다. 나무는 대개 黃楊木을 使用하였으며 하나하나의 本刻字가 만들어지면 칼로 다듬어 四面을 고르게 한다. 한편 鑄匠은 印板에 바닷가의 해감 모래를 고르게 편 후 個個의 本刻字를 그 위로 눌러 凹形을 만든다. 이후 두개의 印板을 습하고 녹인 銅液을 한 구멍으로 쏟아부어 鎔液이 움푹 들어간 곳에 들어가 하나하나의 글자가 되면 이를 깎아 손질하기를 거듭하여 고르게 한다.<sup>45)</sup>

여기서 우리가 높이 評價할만한 것은 溶解時의 빠른 流動性和 鑄造 후의 신속한 凝固力을 갖춘 銅液의 質이다. 이에 대한 오늘날의 化學的 分析에 따르면 대체로 銅과 朱錫 對 鉛과 亞鉛의 비율이 75% : 25%~80% : 20% 정도인데<sup>46)</sup> 鑄造가 거듭됨에 따라 流動性和 凝固力을 높이기 위해 朱錫의 비율을 줄이고 鉛의 비율을 높여 改善시켜 갔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反面 刻印板과 活字의 母型은 별다른 改善을 보이지 않았으니 西歐의 그것과 잠시 비교함으로써 技術上의 問題點을 살피기로 하자. Gutenberg活字 當時부터 西歐에서는 刻印板이나 活字의 母型에 金屬을 使用했다. 우선 刻印板으로는 強鐵같이 견고한 5~8cm 정도의 金屬物을 마련하여 줄로 各面을 잘 고른 후 그 위에 글자를 거꾸로 陽刻으로 새긴다. 이것을 銅이나 鉛으로 된 작은 板위에 망치로 두드리면 글자가 바로 된 陰刻의 活字의 母型이 된다. 이 母型을 鑄型에 끼워 넣은 후 鉛, 朱錫, 안티몬의 溶解物을 흘려 넣음으로서 活字를 만들었다.<sup>48)</sup> 따라서 해감모래를 준비하고 고르는 時

45) 보다 詳細한 說明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물, 교양국사 총서 21, 서울, 1977, pp.120-126.

46) DALAND, Judson, "The evolution of modern printing and the discovery of movable metal type by chinese and Koreans in four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Franklin Institute, Aug. 1931, pp.208-234.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Ⅲ,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0, p.1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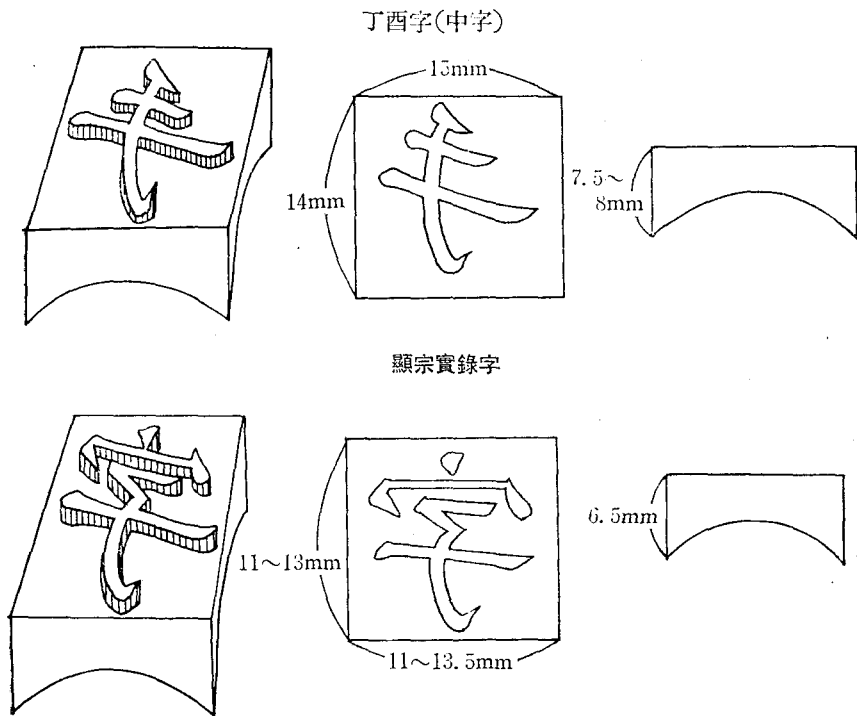
金斗鍾, op. cit., pp.359-360.

47) 全相運, "韓國青銅活字印刷發展의 技術史의 背景, 誠信女子大學校研究論文集, No.5, 1970, pp.43-54.

48) Technique du livre, Texte de l'Ecole des Chartres, Paris, p.15.

間上의 절약은 물론 鑄成된 活字는 角이 고르고 매끈하여 組版時에도 아무 問題가 있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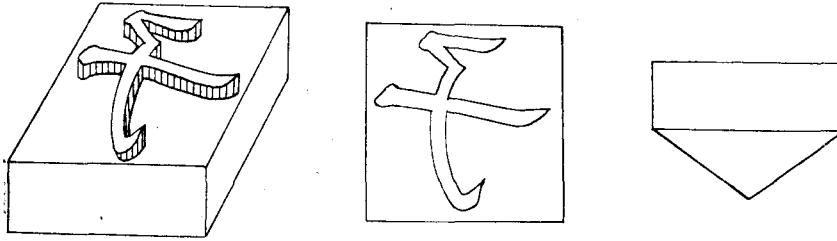
이같은 鑄造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活字의 모양은 어떠한가. 이해를 돕기 위해 現存活字를 圖解로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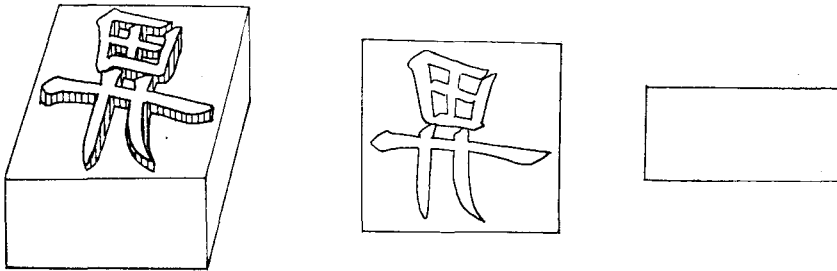
여기서 特記할 만한 사실은 活字의 아랫面이 둥글게 아취形으로 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朝鮮初 活字의 모양에 대해 言及된 바에 의하면 甲寅字 以前の 癸未字나 庚子字는 活字가 고르지 못하여 組版時에는 이를 固定시키기 위해 蜜蠟이나 竹木을 使用했으며 活字의 끝을 錐形으로 만들어 蜜蠟板에 쉽게 固定시키도록 했다는 것이다.<sup>49)</sup> 이를 現存活字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9) 成倪, op. cit.  
 玄宗實錄, 卷69, 18張, 後面.

癸未字 혹은 庚子字



甲寅字



언제부터 活字의 밑면이 둥글게 파이게 됐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이는 아마도 銅의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sup>50)</sup> 밑면이 어떠한 形態였건간에 西歐의 것과 비교할 때 活字의 높이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이는 組版時의 不安定性을 뜻하는 것이다.

이같이 朝鮮朝 活字鑄造에 있어서 金屬溶解液의 混合比率에 약간의 차이를 가져왔을 뿐 거의 改善되지 않은 결함의 緣由를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한번 생각해볼직 하다.

첫째, 金屬의 質이 優秀한데 反해 物量과 採鑛의 不足을 들 수 있다. 太宗年間에는 活字 및 貨幣, 武器의 製造가 늘어남에 따라 表沙貴가 데려온 日本의 製鍊工에게 銅이나 鐵의 精鍊術을 배우도록 命했다.<sup>51)</sup> 또한 玄宗年

50)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p.106.

51) 玄宗實錄, 卷1, 7張, 前面.

間에는 銅의 採鑛을 위해 全羅, 慶尙, 黃海, 平安의 銅生産地에 官吏들을 파견하기도 했으나<sup>52)</sup> 物量은 항상 不足하여, 1424年 年間 要求되는 銅의 量은 48,600斤이었으나 政府의 備蓄量은 겨우 4,011斤에 불과했다.<sup>53)</sup> 따라서 印板의 해감모래나 活字의 母型을 金屬으로 代置시킬만한 構想은 물론, 보다 安定感을 주는 活字의 높이까지 생각이 미칠 수 없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鑄造해야 할 活字의 數나 刻書의 문제에 있어서 東洋은 西洋에 비해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表音文字로서 Alphabet만 가지고 모든 言語를 표시할 수 있는 西歐와 달리 表意文字인 漢字文化圈에 들어있는 東洋은 헤아리기도 힘든 數字의 文字를 利用해야만 하며 機械化되기 이전의 印刷事業에 있어서 이같은 事實은 몇 배의 時間과 努力의 소모를 가져와 決定的으로 發展에 阻害되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書籍 刊行을 刊行하기 위해 4~5千個의 活字가 필요한 東洋에서 만일 西洋같은 Alphabet을 使用했다면 印刷技術은 더욱 革新되었을지도 모른다.<sup>54)</sup> 이같은 觀點에서 볼 때 表音文字인 한글을 朝鮮社會가 輕視했다는데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構造上으로 西洋의 Alphabet과는 다른 點이 있으나 한글의 반포 直後부터 이를 育成시켰던들 새로운 측면의 發展 可能性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 2. 組版·印出·裝訂過程

앞서 밝힌대로 慵齋叢話에 根據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우선 組版을 위해 唱準은 책의 內容에 필요한 活字를 要求하면 守藏은 唱準이 부르는 活字를 찾아낸다. 골라놓은 活字는 均字匠에 의해 板에 植字하게 되는데 이를 上板이라 한다. 이 때 活字가 움직이지 않도록 蜜蠟이나 대나무조각이 사용된다. 上板이 끝나면 活字의 面을 고르게 하기 위해 편편한 나무 판대기로 세게 누른다.

組版이 끝나면 印出匠은 字面에 墨을 바르고 一張을 印出하며 이는 公式의

52) *ibid.*, 卷25, 23張, 前面.

53) 玄宗實錄, 卷23, 6張, 前面.

54) DAHL Svend, *Histoire du livre*, Paris, Poinal, 1960, pp.91-92; CARTER, T.F., *op. cit.* p.233.

印出에 앞서 監校官의 校正을 받기 위함이다. 校正은 오늘날의 그것과 같은 방식이다. 校正이 끝나면 印出匠은 새로이 字面에 墨을 칠하고 종이를 그 위에 올려놓은 후 말총같이 부드러운 솔로 조심스레 위에서 아래로 문지른다.

印出이 끝나면 守藏은 活字를 다시 상자 속에 整理한다.

이것이 朝鮮朝의 組版 및 印出方法으로 앞서 본 바대로 癸未字本の 경우 數紙, 庚子字本은 20餘紙, 甲寅字本은 40餘紙를 하루에 찍어냈다. 一回印出量은 同時代의 西歐의 경우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手動式이나마 이미 印刷機의 形態를 갖춘틀을 使用했던 西歐에 비해<sup>55)</sup> 各張의 印出時마다 솔로 문지르는 方法때문이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印出이 끝나면 裝訂過程이 남는데 이때도 상당한 時間이 요구된다. 우선 版心을 접은후 版心의 반대편을 白紙로 된 끈으로 두 바늘 꿰맨다. 이 때 裝訂을 견고히 하기 위해 망치로 白紙 끈을 두드린다. 紙匠은 版心面을 제외한 나머지 三面의 紙面을 잘 고른다. 한편 보다 두껍고 堅固한 종이를 表紙로 채택하여 各種 무늬가 있는 菱花板 위에 덮어 놓고 蜜蠟을 칠하여 위를 밀돌로 세차게 문질러 눌러서 자국을 낸 다음 윤을 낸다.<sup>56)</sup> 表紙를 덮고 五針眼訂法으로 綴裝한다.

이같은 組版, 印出, 裝訂의 方法은 朝鮮朝를 통하여 變하지 않고 持續되었다.

### Ⅲ. 文獻刊行 및 普及狀況

印刷를 始作하게 된 人間의 動機나 行爲, 또한 全世紀를 거둬하여 研究된 印刷技術의 革新은 말할 것도 없이 情報의 傳達을 위한 書籍의 大衆化 및 普及化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朝鮮朝 文獻刊行 및 普及은 文化史的으로 어떤 評價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點에 대해 本 論文은 첫째로 個人 또는 民間活動, 둘째로 商業活動의

55) AUDIN, Maurice, op. cit., pp.97-99.

56) 徐有集, 林園十六志, 卷105, 怡雲志 卷 第7, 圖書藏訪下 造東本裝書之法.

두가지 側面에서 考察하여 봄으로서 미비하나마 그 解答을 얻고자 한다.

### 1. 個人 또는 民間活動

朝鮮朝의 印刷活動은, 그 밖의 다른 分野에서와 마찬가지로, 一般的으로 政府主導下에서 이루어졌다. 個人的 活動이 統制되었다는 記錄은 찾아볼 수 없으나 50餘回의 朝鮮鮮 活字製造에 있어서 현저히 나타나는 個人 또는 民間活動은 다음의 다섯 경우에 불과하다. 즉 金錫胄의 韓構字, 李載恒의 陶活字, 南公轍의 聚珍筆書體字, 朴宗慶의 全史字 그리고 筆書體鐵活字가 그것이다.

그 原因은 아마도 全活字印刷過程에 있어서 소비되는 많은 費用과 金屬材料의 不足때문이었을 可能性이 짙다. 이같은 事情은 政府官衙 內에서도 中央과 地方의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데 地方은 中央에 비해 16~19c까지 겨우 9차례의 木活字製造에 그쳤을 뿐이다.<sup>57)</sup>

朝鮮朝 民間의 刊行事業은 크게 寺院과 書院 그리고 個人的 活動으로 나눌 수가 있다.

寺院에서의 佛經刊行은 佛敎를 國敎로 받아들였던 高麗朝에 큰 活氣를 띠우다가 朝鮮朝로 이어졌으나 그 活動은 崇儒柳佛策으로 인해 高麗와 비교하여 훨씬 制限된 것이었다.

朝鮮實錄과 鑲板考에 따르면 朝鮮初期부터 1776년까지 全國에 걸쳐 약 8백여 寺院版이 刊行되었다고 하는데<sup>58)</sup> 그나마 주로 木板本이었으며 活字印本이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우기 이들은 거의 先代에 出現한 佛經의 覆製版이었으나 때로는 千字文같은 佛經 以外的 書籍도 刊行했다.<sup>59)</sup>

東西洋의 文化史를 돌아볼 때 宗教는 그 自體의 社會的인 타락을 제외하고는 各 分野를 인도하고 융성케 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高麗朝의 印刷事業이 거의 佛經과 연결된 宗教的인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또한 루터의 宗教改革을 前後하여 늘달만한 印刷術의 普及을 가져왔음을 감안할 때,<sup>60)</sup> 朝

57)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pp.323-324.

58) 金斗鍾, op. cit. pp.271-437.

59) ibid., p.244.

60) FEBVRE, Lucien et H.J. Martin, op. cit. pp.403-411.

鮮朝가 佛敎에 대해 好意的인 反應을 보였던들 우리의 印刷 및 刊行事業은 보다 發展된 것이 아니었을까.

書院에서의 印刷은 1543年 書院의 嚆矢인 白雲洞書院이 設立된 후 16c末서 부터 始作되었다. 朝鮮 書院의 興成은 黨派싸움과 富의 蓄積등 批判的인 汚點을 남겼으나 刊行事業은 書院의 數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여 全 書院을 통해 172種의 書院版이 刊行되었다.<sup>61)</sup> 이 숫자는 朝鮮末期 書院의 數가 800餘處에 이른 것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숫자일뿐만 아니라 印刷方法이 木板이 있는지 活字本이 있는지 明確치 않기 때문에 活字本의 경우는 매우 制限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個人的 活動은 대체로 西歐社會 역시 이와 비슷한 樣相을 띠고 있지만 흔히 個人的 文集, 家系 또는 族譜를 刊行할 目的으로 成立되었다. 金斗鍾博士의 調査에 의하면 약 200餘 個人版이 있는데 實際로는 이보다 숫자가 많을 것을 示唆했다.<sup>62)</sup> 이 역시 木板木이나 活字本의 區別이 없어 그 숫자를 알 길은 없으나 前述한 個人的 活字製造등을 비추어 볼 때 적어도 書院版이나 寺院版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個人이나 民間活動이 어떠한 것이었건간에 全體 朝鮮朝 印刷 및 刊行事業에 견주어 볼 때는 지극히 하찮은 비율이며 그나마 活字印本의 경우는 더욱 制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個人 및 民間活動에 부수적으로 반드시 考慮되어야 할 점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政府活動이건 民間活動이건, 中央이건 地方이건간에 文獻의 刊行이나 普及이 民衆보다는 兩班屬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大量生産의 出版文化의 發展을 沮害하는 重要的 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미 前述한 바 우리의 古印刷術은 活字의 '字數나 '字樣등의 難點으로 인해 活字鑄造에서 組版, 印刷에 이르기까지 西歐의 것에 비해 加一層 勞苦가 要求되는 것이며 이러한 勞苦의 代價는 보다 많은 發行部數를 隨伴할 때 相殺될 수 있는 것이다. 發行部數는 一般的으로 需要와 直結되는 것으로서 兩

61) 金斗鍾, op. cit., pp.272-273.

62) ibid., pp.274-281, pp.448-453.

班層단을 위한 出版은 그 數的으로 制限될 수 밖에 없다. 民衆에 의해 發生하고 民衆에 의해 波及되어 15c 중엽의 活字印刷의 出現以來 1480年代에는 이미 구라과 全地域의 印刷文化圈을 形成한 西洋과 比較할 때<sup>63)</sup> 훌륭한 文化的 發明을 만족할만한 結實로 이끌지 못한 朝鮮朝의 印刷事業의 結果는 납득이 갈만한 일이다.

發行部數에 관해서는 古文獻상의 記錄도 오늘날의 研究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現在까지 調査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1) 妙法蓮華經(1457) ; 100部<sup>64)</sup>
- 2) 永嘉眞覺禪師證道歌註解(1457) ; 100部<sup>65)</sup>
- 3) 天地冥陽水陸雜文(1496) ; 200部<sup>66)</sup>
- 4) 藥泉集(18c) ; 300部<sup>67)</sup>
- 5) 金剛經(三家解)(1482) ; 500部<sup>68)</sup>

以上 發行部數는 100~500部 사이인데 이 숫자는 面數와 반비례하여 面數가 적으면 發行部數가 많아지고 面數가 많으면 發行部數가 적어져 보통 文獻의 發行部數는 100~300部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西洋과 比較할 때, 이 發行部數는 15c 活字發生 當時의 것과 흡사한 점이 있으나 到處에 專門 出版業者나 書店이 생겨난 15c 末에는 이미 1千臺가 훨씬 넘어 있었다.<sup>69)</sup>

調査된 上記 文獻외에 별다른 記錄이나 研究가 없이 朝鮮朝 全般을 걸친 文獻의 發行部數는 명확히 定義내리기가 어려우나, 印刷事業의 一般的인 進陟狀況을 견주어 볼 때 큰 變動은 없을 것으로 思慮되며 이같이 制限된 發行部數가 國民生活의 文獻의 大量普及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 명백한 얘기다.

두번째로 商業活動의 側面을 살펴보자. 어떠한 分野에서든 商業活動은 그

63) FEBVRE, Lucien et H.J. Martin, op. cit., pp.258-261.

64) 本書跋文

65) 本書跋文

66) "

67) "

68) "

69) FEBVRE, Lucien et H.J. Martin, op. cit., 308-309.



分野의 育成과 發展에 決定的 要因으로 作用해왔음을 우리는 全 歷史를 통하여 볼 수 있다.

朝鮮朝 文獻의 刊行과 普及에 있어서 民間活動과도 密接한 關係를 갖는 商業活動은 불행히도 엄청난 經費에 基因했진, 物資의 不足에 基因했진 間に 政府의 政策에 의해 制限되거나 統制되어, 技術의 革新이나 文獻의 大量 出版 및 普及에 기여하지 못 했다. 印刷事業에 至大한 關心을 갖고 그 發展을 위해 勞力을 아끼지 않았던 世宗도 刊行된 書籍의 販賣는 禁止시켰다.<sup>70)</sup> 이러한 政府의 施策은 出版事業의 産業化의 可能性에 制動을 거는 것이었다. 앞서 言及한 바대로 兩班層을 위한 制限된 發行部數로 보나, 當時의 多數 民衆의 文盲으로 보나, 印刷技術의 難點이나 엄청난 經費로 보나, 政府의 禁止가 없었다해도 商業活動이 發展할만한 根據는 아무데도 없었다.

朝鮮朝 書籍의 販賣問題는 太宗10년부터 鑄字所에서 書籍을 販賣토록 했다는 記錄이 나오지만<sup>71)</sup> 이것이 實行되었다는 記錄은 없으며, 明宗年間 書肆의 設立問題가 논의된 듯하나<sup>72)</sup> 이 역시 실행되지는 않았다. 魚叔權의 攷事攝要를 보면 당시 書籍에 대한 價格이 나오는데 0.5~5.5匹의 布木과 1~2.5斗의 쌀에 準했다. 보통 布木 2匹과 1.5斗의 平均値를 갖는 이 價格은 當時의 國民의 經濟相으로 볼 때 엄청난 것이었으므로 설사 뜻 있는 民衆이라해도 접근키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몇 차례 木活字를 만들기도 했던 訓練都監에서도 書籍을 販賣했다고 하나<sup>73)</sup> 이는 軍費의 充當을 위한 것으로서 별로 特記할만한 것이 못 된다. 어찌되었건 鑄字所, 書肆, 訓練都監에서의 書籍販賣는 現代的 意味의 商業活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19c初가 되어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sup>74)</sup>

全 朝鮮朝를 통해 판매된 坊刻本은 全域에 걸쳐 100餘種에 있는데 그 中 17c에 6種이 販賣됐고 나머지는 18c 이후의 것이다.<sup>75)</sup>

70) 世宗實錄, 卷68, 2張, 後里.

71) 註 8과 同一.

72) 明宗實錄, 卷11, 51張, 後面, 52張 後面.

73) 金斗鍾, op. cit., p.455.

74)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誌 第11號, pp.97-137.

75) ibid.

西洋의 경우를 참고하면, 이미 1480年代부터 文獻 市場이 개척되어 1490年代의 主要 出版社<sup>76)</sup>數는 1,500餘에 달하게 되며 16c末 大學教育이 育成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書籍까지 포함되어 書店의 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sup>77)</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 朝鮮朝 文獻刊行이나 書籍의 普及은 주로 朝廷과 兩班層 사이에서 盛行된 것으로서 民衆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世界印刷文化史의 側面에서 하나의 問題點을 提示하여 주는 것이다.

### 結 論

미비하나마 朝鮮朝 活字鑄造와 文獻刊行에 있어서의 綜合的 評價에 대해 考察해 보았다. 그 方法論에 있어서는 序論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年代史 내지는 形態書誌學的 側面보다 技術發達史와 文化史의 側面에 重點을 두어 問題點을 提起하고 그 結果를 얻고자 했다.

다시 한번 論文을 要約하거니와 朝鮮 初期 癸未字의 鑄造는 世界最初의 大量生産과 이에 따른 實用化로 世界印刷史속에 그 意義를 크게 심고 있으며 癸未字의 결점을 補完하여 鑄造된 甲寅字는 活字의 우수성으로 보나 印刷技術로 보나 朝鮮朝 印刷史 5世紀를 통해 가장 훌륭히 評價되면서 初鑄以後 다섯차례나 改鑄되면서 많은 印本을 남겼다.

15c 前半期에 이토록 獨創적이고 優秀했던 印刷文化는, 世紀를 거듭하면서 눈부신 發展을 이룩한 西歐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以後 별다른 技術上의 進歩없이 踏步狀態에 빠졌으며 本 論文은 바로 이 點에 대해 緣由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한 接近方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技術, 民間 및 個人活動, 商業活動을 통한 活字鑄造 및 文獻刊行의 實態에 대해 研究했다.

76) 西洋의 경우 주로 出版社에서는 書籍의 販賣를 겸한다.

77) FEBVER, Lucien et H.J. Martin, pp.307-309.

언어진 結論은 불행히도 否定的인 側面으로서, 活字의 金屬成分의 優秀性에도 불구하고 印板과 活字의 母型, 組版, 印出文法의 難點과 原始性이 發見되었고, 西歐의 印刷文化를 크게 發展시킨 主原因이 되는 民間 또는 商業活動에 있어서도, 印刷事業의 政府主導에 따른 問題點으로, 特記할만한 活動을 보여주지 못 했다.

그러나 여기서 밝혀들 일은 이 모든 것이 朝鮮朝全般에 걸친 觀點으로서 世紀別로 나누면 새로운 각도의 肯定的인 側面的 研究도 나올 수 있고 아직도 개척되지 못한 朝廷이나 兩班層의 印刷事業에 대한 文獻學的 意見도 있을 수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앞으로의 研究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研究를 뒷받침할만한, 특히 古文書의 記錄을 비롯한 充分한 資料를 갖추지 못 해 미흡하게 끝을 맺게 되는데 대해 遺憾을 표시하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 <書誌一般·事典·辭典類>

1. 金然, 海東文獻總錄, 1637, 影印本, 서울, 學文閣, 1967, 857p.
2. 善本解題, 서울, 韓國圖書館研究會, 1975, 342p.
3. 李弘植, 國史大事典, 서울, 百萬社, 1974, 2257p.
4. 제불한국관계문헌목록,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69, 152p.
5. 諸洪圭, 韓國書誌學辭典, 서울, 景印文化社, 1974, 542p.
6. 韓國論著解題,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2~1974, 4 vol.
7. 前間恭作, 古鮮册譜, 東京, 東洋文庫, No. 11, 1925, 影印本, 서울, 1969, 3 vol.
8. A classified catalogue of Korean books in the Havard-Yenching Institute Library, Havard University, 1962, 1966, 2 vol.
9.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edited at the Knowledge Availability System Center, University of Pittsburgh, 1974.
10. BIGMORE, E.C. and WYMAN C.W.H., A bibliography of Printing, New York, Philip C. Duschanes, New York, 1945, 2 vol.
11.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Ernest Leroux, 1894-1901, 4 vol.
12. \_\_\_\_\_, Catalogue des livres chinois, coieens, japonais, etc. Paris, Ernest Leroux, 1900-1903, 4 vol.

13. GLAISTER, Geoffrey Ashall, An encyclopedia of the book,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0, 484p.
14. La chose imprimée, sous la direction de John Dreyfus et François Richardeau, Paris, RETZ, 1977, 640p.

#### <古文獻>

1. 權近, 陽村集
2. 卞秀良, 東文選
3. 徐有築, 林園十六志
4. 成倪, 慵齋叢話
5. 魚叔權, 攷事攝要
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7.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서울, 1955-1963, 49 vol.
8. 沈括, 夢溪筆談

#### <韓國文獻>

1.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誌, No.11, 서울, 延世大學校, 1970, pp. 97-139.
2. 金斗鍾, “近世朝鮮의 後期活字印本에 대한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3. ———,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625p.
4.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郷土서울, 7/1958, pp.7-166.
5. ———, 韓國古活字概要, 서울, 乙酉文化社, 1954, 36p.
6. 孫寶基, 금속활자와 인쇄술, 교양국사총서 21, 서울, 교양국사총서 편찬위원회, 1976, 325p.
7. ———, 韓國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Ⅲ,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0, pp.967-1061.
8. 安春根, “坊刻本論攷”, 書誌學 No.1, 서울, 韓國書誌學會, 1968.
9. 李丙燾, “文化史上으로 본 世宗大王偉績”, 韓國學研究叢書 1, 서울, 成進文化社, 1971, pp.153-164
10. 최상준, “우리나라 원시시대 및 고대의 쇠붙이 유물분석”, 고고민속 No.3, 1966.
11.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 No.6, 1974, pp.1-27.  
———, 韓國古印刷史, 서울, 圖書館學研究會, 1976, 331p.
12. 韓國文化史大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9-1970, 7 vol.
13. 韓國史, 震檀學會編, 서울, 乙酉文化社, 1961-1965, 7 vol.

## 〈中・日語文獻〉(發音의 Alphabet體)

1.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 北京, 人民出版社, 1958, 208p.
  2. 史梅岑, 中國印刷發達史, 262p.
  3. 加茂儀一, 技術發達史, 東京, 商工行政社, 1943.
  4. 川瀨一馬, 古活字版の研究, 東京, 安田文庫, 1937, 2 vol.
  5. 屈萬里, 昌彼得, 中國板本學要略,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3, 184+22p.
  6. 黑田亮, 朝鮮の板本, 東京, 松浦書店, 1941, 295p.
  7. 前間恭作, 朝鮮の板本, 東京, 松浦書店 1923, 影印本, 서울, 1968, 196p.
  8.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その歴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6, 192p.
  9. 中山久四郎, 世界印刷通史, 東京, 三秀舎, 1930, 2 vol.
  10. 大塚鐙, “癸未字”, 朝鮮學報 21-22, 1961, pp.369-393.
  11. 庄司淺水, 印刷文化史, 東京, 印刷學會出版部, 1957, 270+16p.
  12. 李仁榮, “癸未字について”, 學叢 No.2, 서울, 京城大學校文學會, 1943, pp.89-92.
- , “鮮初の活字版について”, 學叢 No.2, 서울, 京城大學校文學會, 1943, pp.99-101.

## 〈英・佛語文獻〉

1. A millennium of printing in china, Korea, and Japan, Stockholm, the Royal Library, 1972 32p.
2. AUDIN, Marius, Histoire de l'imprimerie par l'image, Paris, Jonquière, 1928-1929, 4 vol.
3. AUDIN, Maurice, Histoire du l'imprimerie, Paris, A. et J. Picard, 1972, 480p.
4. CARTER, Thomas Francis,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New York, Ronald Press, 1955, 293p.
5. DAHL, Svend, Histoire du livre, Paris Lamarre-Poinat, 1967, 348p.
6. DALAND, Judson, “The evolution of modern printing and the discovery of movable types by the chinese and Koreans in the four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Franklin Institute, Vol. CCXII, No.2, 1931, pp.209-234.
7. De Vinne, Theodore L., The invention of printing, New York, 1876.
8. FEBVRE Lucien et Henri Jean Martin, L'apparition du livres, Paris, Albin Michel, 1958, 558p.
9. GOODRICH, L. Carrington, “Movable type Printing; two note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94, No.4, 1974, pp.476-477.

10. La CAILLE, Jean de, Histoire de l'imprimerie et de la librairie...jusqu'en 1689, Genève, 1971, 322+108p.
11. McGovern, Melvin P., Specimen pages of Korean movable types, Los Angeles, Dawson's book shop, 1966.
12. MARTIN, Henri Jean, Histoire du livre, Paris, B.N., 1964, 2 vol.
13. SATOW, Ernest, "Further Notes on movable types in Korea and early Japanese printed book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X, part II, 1882, pp.252-259.
14. Technological change in printing and publishing, Rochelle Park, N.J., Hayden Book, 1973, 275p.

---

## Le bilan synthétique de la typographie coréenne pendant la dynastie de Chosŏn

Hee-Jae Lee\*

### Abstract

On admet jusqu'ici que le XVe siècle est une époque phare de l'histoire de l'imprimerie avec l'apparition de la typographie en Orient et en Occident, c'est-à-dire en Corée et sur le Rhin. Cependant, l'époque de l'invention typographique en Corée doit être devancée encore d'un ou deux siècles. Outre cette question, il est à noter ici que les caractères mobiles métalliques Kyemi, fondus en 1403, ont joué un rôle très important dans l'histoire de la typographie mondiale et que les caractères kabin qui leur succédèrent en 1434 menèrent la typographie coréenne à son apogée.

Or, les recherches coréennes se satisfont de la primauté de l'invention en Corée des caractères mobiles métalliques, mais n'adoptent pas une attitude suffisamment critique. Aussi, l'auteur a-t-il voulu s'interroger sur la véritable valeur de la typographie de la dynastie de Chosŏn tant au point de vue de l'histoire de l'imprimerie mondiale.

En premier lieu, on étudie, comme une chronique, les caractères mobiles métalliques importants tout au long de la dynastie de Chosŏn sans donner une interprétation nouvelle. C'est dans deux derniers, qu'on essaie de développer ses idées sur la typographie en Corée notamment la question technologique qui devrait être le fond des recherches.

---

\*.Professeur Assistant de l'Université de Cheongju.

Aussi, on y étudie, la technique de la typographie ancienne en Corée interprétée selon une méthode scientifique et moderne et, enfin, le bilan synthétique en cherchant les raisons qui freinèrent son développement en Corée malgré la performance de ses débuts.

A l'issue de ces recherches, on ne peut s'empêcher d'éprouver une certaine insatisfaction à cause de l'ambiguïté des explications que l'on trouve dans des documents fondamentaux. Avec ce difficulté on a voulu, au moins, exposer des points discutables qui devraient être les recherches à futur.